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숲유치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새해 소망을 나누는 활동과 함께 웃놀이,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 등으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명절 웃음꽃, 가는 곳마다 문화 진주성찬



국립광주박물관 명절 행사 모습.

설 연휴를 맞아 명절의 온기를 더해줄 문화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통 놀이의 흥겨운 장단과 아이들의 웃음,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까지 다채로운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세대를 잇는 명절 풍경을 만들 전망이다.

먼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도자문화관,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실 등 박물관 일원에서 ‘2026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을 갖는다.

14일 대강당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를 선보이고,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는 하루 200명 한정 선착순으로 ‘붉은 말의 해, 마파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도자문화관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도자문화관 전시 관람 사진을 인증하면 참여 가능한 멀티스텝 이벤트가 이뤄진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14일부터 18일까지(설 당일 제외) 상설전시관 일원에서 ‘2026 설맞이 특별행사–설레는 과학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상설홀에서는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5일에는 관객이 함께 리듬을 맞이한다.

16일과 18일은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하며, 행사 기간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위기의 지구, SOS’ 특별전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과 18일 박

국악공연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불든다. 행사기간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하면 박물관 옆서 8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김상우)은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설날은 ACC와 함께’를 운영한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어린이 연극 ‘어둑시니’와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무용 ‘1°C’. ‘어둑시니’는 2023 ACC 어린이·청소년 창제작 공연으로, 한국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지난 2024년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 수상에 이어 활발히 유통됐다. 공연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한국 전통 요괴 어둑시니와 세상을 피해 아둠 속에 들어온 인간 아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어둡지만 따스한 여성을 그린다.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인 ‘1°C’는 2025 ACC 국제협력 공연으로 안무가 허성암이 선보이는 현대무용이다. 작품은 단

1°C의 온도 변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협을 역동적인 움직임과 조명, 음악으로 표현한다. ‘예술은 기후 위기 앞에서 행동을 축발할 수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모든 작은 몸짓이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해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을 올린데 이어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등 영국 3개 극장 초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설맞이 행사 관계자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문화기반시설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설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가 펼쳐진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어린이 연극 ‘어둑시니’.



국립광주박물관 지난해 명절 행사 모습.

16일과 18일은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하며, 행사 기간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위기의 지구, SOS’ 특별전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과 18일 박

국민 속 놀이·국악기 체험이 마련되고, 로비에서는 복 연하장 만들기, 전시실과 로비에서는 숨은 말 인형 찾기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선착순 50명에 한해 각각 복 노리개와 복 손거울, 복·말 소원카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17일에는 ‘복 어는 풍류’, 18일에는 복 나누는 OST ‘한상’ 등 신명나는

